

# NEWS LETTER

2019년 3월 25일 Vol. 337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원내교육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0일 제3세미나실에서 교직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원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연구위원 김현수 교수가 연자로 나서 ‘의료윤리의 철학적 성찰과 윤리적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내용으로 의료윤리의 의미와 원리, 윤리적 판단의 실제와 윤리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윤리적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강의에서 김현수 교수는 의료인들이 윤리적 결정을 내리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참된 용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성준 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윤리위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위원회에서 윤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 재활의학과 연하재활팀, ‘제1회 동국 연하재활 워크숍’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연하재활팀은 지난 3월 16일 지하 1층 제3세미나실에서 ‘제1회 동국 연하재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치료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재활의학과 연하재활팀이 그동안 쌓아온 연하장애 환자들의 치료적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날 워크숍에는 재활의학과 박진우 교수를 비롯해 총 47명의 작업치료사가 참여했으며,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환자들의 연하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을 펼쳤다. 재활의학과 박진우 교수는 “지난 14년간 연하재활팀은 연하장애 환자 치료를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회복해 먹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연하재활 임상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현미숙 수간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신진연구자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현미숙 수간호사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상반기 한국연구재단 ‘2019년 이공학 분야 개인기초 연구지원 사업’ 우수 신진연구논문에 선정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병원 내 구성원 중 이직률이 가장 높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타직종과의 그릿과 잡 크래프팅, 조직효과성의 차이와 의료기관 전체 조직에 대한 인력관리개선에 중요한 정책적 근거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앞서, 현미숙 수간호사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비 2천만 원에 이어 이번 연구비 6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공학 개인기초 연구 간호학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현미숙 수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전문가들이 이 같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 같아 기쁘다.”며, “많은 동료와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스토리

### 연우회 성지순례기 연재 – 3회 미얀마 봉사활동 및 성지순례 이야기



연우회 미얀마 봉사활동 및 성지순례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인레호수와 양곤 순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순례단은 여의도의 10배 면적인 인레호수를 찾아 전통카누에 몸을 싣고 파웅도 파고다를 방문했다. 바다인지 호수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인레호수는 미얀마 160여개의 소수민족이 호수위에서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며, 토마토 등을 수경재배하고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다. 미얀마에 오기 전에 유튜브와 TV에서 쉐다곤 파고다를 그렇게 많이 보았건만 화면에서 보는 것과 실제 직접 체험하는 것은 너무 달랐다. 1인당 GDP가 1,000달러 정도인 최빈국 중의 하나인 미얀마, 그럼에도 내 이웃과 부처님께 보시행을 행하는 나라, 작은 것에 만족하며 행복해 하는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천불천탑의 부처님의 나라에 다녀오며, 가족들과 함께 이 곳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소박한 발원을 세워본다.

## 칭찬글

### 보석처럼 빛나 보인 ‘주사실 박소기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병원은 특수한 직종이기에 연휴에도 항상 진료를 해야 하며, 평소보다 최소의 인력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지난 명절 저는 몸이 좋지 않아 휴무지만 병원에 나와 주사처방을 받고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침대는 꼭 차있었고 연휴라고 환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주사를 맞으며 누워 있는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침착하고 예의바르게 환자 한 분 한 분 대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얼마 지나 외래 동료간호사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외래 간호팀의 끈끈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을 보살피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박소기 선생님과 같은 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끝까지 환자를 배려하는 모습에 저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꼭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